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의 고통을 보소서”
내전 격화...남아공 등 외국군 13명 사망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정부군과 투치족 반군 M23의 내전이 격화하면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외국 파병군 최소 13명이 숨졌다. AFP·AP통신에 따르면 남아공 국방부는 M23와 교전 과정에서 유엔평화유지군(MONUSCO) 2명,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파병군 7명 등 자국 장병 9명이 전사했으며 부상자 규모는 확인 중이라고 25일(현지시간) 밝혔다.

말라위와 우루과이 당국도 각각 3명과 1명의 자국군이 M23 상대 작전 중 사망했다고 밝혔다. 민주콩고에서는 M23와 민주군사동맹(ADF) 등 100개 넘는 무장단체가 준동하고 있다. 남아프리카 16개국 모임인 SADC는 무장단체 소탕을 지원하기 위해 유엔평화유지군과 별개로 2023년 각국 장병을 파견했다.

M23는 몇 년간 쉬다가 2021년 11월부터 무장 공격을 재개했다. 최근 들어서는 인구 200만 명의 동부 거점도시 고마를 집중 공략 중이다. 국제사회는 외국 파병군과 민간인 인명피해 우려가 커지자 전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콩고와 유엔 등은 인접국 르완다가 M23를 지원한다고 의심하지만 르완다는 부인하고 있다.

본지 고마 통신원에 따르면, 지금 고마는 두려움과 공포에 싸여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난민들, 2-3일 만에 40만 명이 움직이는 피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반군들이 고마와 르완다 국경이 있는 기세니까지 폭탄이 떨어져 본지 통신원도 긴급하게 이동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군과 반군은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 기관포와 총소리가 연이어지고 있다. 고마의 관공서와 공항, 작은 국경은 폐쇄되었다. 평화유지군 가운데서도 사상자가 나와 유엔과 국제사회 여론도 당장 멈출 것을 경고하고 있다. 케냐 대통령도 콩고민주공화국과 르완다 두 나라 간의 중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출처: 연합뉴스, 기도24·365본부 종합).

피 흘림을 심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심이어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시편 9:12-13)

하나님, 미노바를 장악한 반군 세력이 이제는 고마 지역까지 내려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민주콩고의 고통을 돌보시고 주의 공의로 피 흘림을 심문하소서. 속히 이 내전이 끝날 수 있도록 간섭하시고, 갈 곳을 잃고 살길을 찾아 떠나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사망의 문 앞에 있는 자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을 이 땅에 선포하여 주셔서 민주콩고 영혼들에게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시는 주님이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깨달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차티스가르주, 엄격한 개종금지법 도입



인도 중부에 위치한 차티스가르주가 기존 개종금지법을 대체해 우타르프라데시주와 같은 엄격한 개종금지법을 도입했다고 국제크리스천컨선(ICC)이 전했다. 이 새로운 법안은 강제 개종을 시행한 사람에게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차티스가르주의 법률 체계로는 특별한 법적 절차 없이 종교 개종이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주 정부는 이러한 비공식적이고 규제되지 않은 개종 과정을 문제로 보고 이번 법안에서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종교 개종을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적법한 절차 없이 종교를 변경할 경우, 새로 개종한 종교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개인을 유혹하거나 강제로 개종시킨 사람에 대해 법적 조치가 취해진다. 차티스가르주는 부족 지역인 바스타르(Bastar), 자슈푸르(Jashpur), 라이가르(Raigarh) 지방에서 원주민들의 대규모 기독교 개종 문제로 문화적, 정치적, 종교적 갈등이 발생한 곳이다.

2023년에는 바스타르의 나라얀푸르(Narayanpur) 지역에서 토착 애니미즘(원시 신앙)에서 기독교로의 종교 개종을 둘러싸고 파벌 간의 갈등이 일어나 토착민들과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사이에 많은 폭력적 충돌이 발생했다. 이에 차티스가르 정부는 2024년 초부터 종교 개종에 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하고 강력한 법안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이번 새로운 법안은 약 10개 주의 유사 법률을 참고했으며, 그중 가장 엄격한 우타르프라데시의 종교 자유법의 주요 조항이 차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일관된 절차를 만들고,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엄격한 처벌을 내리는 것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현재 차티스가르주는 힌두교를 지지하는 인도인민당(BJP)이 통치하고 있으며, 이 정당의 지도자인 프라발 프라탑 싱 주데오(Prabal Pratap Singh Judeo)는 최근 차티스가르주에서 종교 개종이 만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기독교나 다른 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계속 원주민 부족을 위한 혜택을 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들을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일 차티스가르주에서 임신 6주였던 기독교인 쿠니카 카샤프가 전통 종교를 믿는 부족 친척들에게 구타와 목졸림을 당한 뒤 뱃속 아기까지 유산했다. 그녀의 남편은 촌장이 쿠니카 카샤프가 기독교인 친척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몰래 녹음하려 했고, 이를 증거로 삼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 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린도전서 15:32,54)

하나님, 기독교 박해를 강화하며 영혼들이 구원 얻는 일을 막으려는 차티스가르주의 힌두 정당 지도자들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완악한 마음을 책망해 주시고, 듣고 돌이키는 은혜를 주소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기독교로 개종하려는 이들에게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담대함을 주십시오. 또한, 사람의 방법으로 더불어 싸우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전쟁하는 그리스도의 군사 되게 하옵소서. 보이는 현실보다 부활 생명과 최후 승리가 더욱 실제인 교회를 통해 인도의 영혼들이 참 진리이신 예수께 돌아오게 하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종교자유위, 중양아 5개국 평화적 종교 활동 억압 지적



미국의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양아시아의 5개국(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이 극단주의 방지 법률을 이용해 평화적인 종교 활동을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온라인 선교뉴스 미션네트워크뉴스가 전했다.

중양아시아에서 기독교 사역을 지원하는 슬라브복음협회(SGA)의 에릭 모크(Eric Mock)는 “이들 국가는 극단주의에 대응한다는 명목하에 모든 신앙을 억압하고 있다”며 “이는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가 엄청난 압박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

명했다.

중양아시아의 각 나라는 고유한 특성과 상황을 가지고 있지만, 슬라브복음협회는 현지 사역 파트너들로부터 이들이 신앙 때문에 겪고 있는 압박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에릭 모크는 “우리가 보고받는 바에 따르면, 상황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몇몇 목사들은 체포되거나 경찰서로 끌려가 자신들의 활동을 해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말했다.

또 “어떤 교회들은 법 집행 기관이 교회에 침입해 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심문하며 다시는 모이지 말라고 지시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기독교인과 사역자들은 정부의 검열과 법 집행기관의 압박뿐만 아니라, 대다수가 이슬람을 믿는 사회에서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에릭 모크는 “슬라브복음협회가 지원하는 ‘임마누엘의 아이’(Immanuel’s Child) 크리스마스 프로그램, 여름 캠프, 고아 사역 등 크리스마스 행사를 열 때, 이들은 정부로부터의 제약뿐만 아니라 이슬람이 주류인 사회로부터의 박해도 겪고 있다. 특히 무슬림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이를 고수하면 가정에서 쫓겨나는 일도 있다”고 전했다.

모크는 “그들 중 누구도 박해가 끝나기를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빛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며 “우리는 정부의 변화와 이슬람 단체들로부터 오는 박해를 장애물로 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자신들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태복음 5:14-16)

하나님, 중양아시아 5개국에서 극단주의에 대응한다는 명목하에 정부의 제재와 이슬람 국가로 사회적 박해와 엄청난 억압을 받는 교회에 믿음과 감당할 힘을 주십시오. 이때 고난을 모면하기 위한 기도가 아닌 자신을 빛의 통로로 주께 드리는 성도들의 고백에 마음을 같이하여 간구하오니 이들을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세상의 빛으로 사용하소서. 그리하여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이 나라가 교회의 착한 행실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고 믿음에 이르러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찬송하리로다”
교계 지도자들, 여객기-헬기 충돌 사고 희생자 위해 기도



지난 1월 29일(현지시간) 밤 9시께 미국 수도 워싱턴 D.C. 인근의 로널드 레이건 공항 인근에서 소형 국내선 여객기가 군용 헬기와 공중에서 충돌한 뒤 인근 포토맥강으로 추락했다. 이로 인해 양쪽 탑승자 67명이 사망한 가운데, 목회자들이 위로로 전했다.

기독교지도자협회 조니 무어 목사는 1월 30일 성명을 통해 “모든 미국인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너무 일찍 생을 마감한 사람들의 가족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전했다. 애틀랜타 에베네저침례교회를 이끄는 민주당 미국 상원의원 라파엘 워녹 목사는 “이것은 파괴적인 비극이다. 관련된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구조 및 복구 활동에 동참한 용감한 구급대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했다.

미 남침례회 북미선교위원회 차세대 이사인 세인 프루이트 목사는 “피해를 입은 모든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에도...당신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께서는 여전히 슬픔에 잠긴 이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신실하십니다”라는 기도문을 올렸다.

앨라배마 버밍햄의 록스티교회 마이크 D. 맥클루어 주니어 목사는 페이스북에 “주님, 우리는 이 파괴적인 상실을 겪은 모든 이들을 올려드립니다. 고통 속에서도, 의문 속에서도, 당신께서 여전히 상심한 이들 곁에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이 가족들이 슬픔의 골짜기를 건너라도 당신 안에서 희망을 찾도록 도우소서. 그들을 사랑으로, 지원으로, 그리고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으로 감싸 주소서”라고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고에 대해 “(사고) 헬기는 (여객기를 피하기 위해) 수백만 가지의 다른 기동을 할 수 있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냥 그대로 갔다”면서 “그들(사고 헬기와 여객기)은 같은 고도에 있어서는 안 됐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항공청(FAA)의 다양성 추진에는 심각한 지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중점을 두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직전 정부의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중시 인사 정책으로 인해 능력이 부족한 항공관제 인력이 채용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후 백악관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일부 사망자 가족을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종합).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며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다(시편 42:5-6)

하나님, 여객기와 미군 헬기의 충돌 사고로 전원이 사망했다는 참담한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주의 종들을 통해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 가족과 친구를 잃고 슬픔과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품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진리 안에 거하며 살게 하소서. 더욱 이때 미국교회가 복음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길을 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 된 성도들을 통해 이 땅 영혼들이 회복되어 다시 성경적 가르침으로 돌아가 주님을 찬송하며 주의 거룩함을 삶의 기준과 가치로 삼게 하소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부흥 유럽 컨퍼런스, 75개국서 2,000명 청년 참여



제3회 부흥 유럽(Revive Europe) 컨퍼런스가 2024년 12월 28일부터 2025년 1월 1일까지 폴란드 크라쿠프에서 열렸다. 유럽 전역에서 영적 부흥을 갈망하는 학생과 청년 2,000명이 75개국에서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에반젤리컬 포커스가 최근 보도했다.

‘길을 예비하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컨퍼런스는 세례 요한과 엘리야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회개와 헌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준비시키시는지 성경 말씀과 강의, 세미나, 소그룹 모임을 통해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컨퍼런스 첫날인 12월 28일, 짙은 안개로 인해 크라쿠프 공항이 폐쇄되고 모든 항공편이 결항됐다. 하지만 참가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카토비체, 바르샤바, 인근 국가들에 도착한 뒤, 버스와 자동차로 오랜 여정을 거쳐 타우론 아레나에 도착했다.

매일 밤 수백 명의 사람이 회개, 헌신, 용서를 위한 초대에 응답하며 예수님께 자신을 드리고 깊은 개인적 만남을 경험했다. 참가자들은 소그룹에서 기도에 참여한 후,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며 경험한 부흥의 조짐을 간증했다. 파티 분위기로 유명한 학교들에서도 전례 없는 수준의 회심, 세례, 성경 공부 그룹 참여가 이루어졌다는 간증이 공유됐다.

이번 컨퍼런스 강사로 나선 인신매매근절 단체 A21의 크리스틴 케인(Christine Caine)은 모든 세대가 자신의 헌신을 필요로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그녀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전에, 부흥을 맛보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다. 각 세대는 각자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캠퍼스 사역자 율리아 가르샤겐(Julia Garschagen)은 ‘좋은 소식, 나쁜 소식’이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다. 그녀는 “좋은 소식은 행복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라며, 학생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을 용감하게 대학과 친구들에게 전하라고 격려했다. 참가자들은 각국의 대표들과 함께 기도하며 회개와 부흥을 위해 헌신했다.

12월 29일과 30일은 450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크라쿠프 거리로 나가 복음을 담대히 전했다. 이 중 83명이 저녁 집회에 참석했으며, 여러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2025년 새해 첫날, 참가자들은 구체적인 헌신을 결단했다. 컨퍼런스의 주최측은 “지금 하나님께서 유럽 대륙 전역에서 세우고 계신 세대의 한 단면일 뿐”이라며 “유럽은 탈기독교가 아니라 부흥 전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로마서 12:1-2)

하나님, 유럽 전역에서 영적 부흥을 갈망하는 학생과 청년들이 컨퍼런스에 모여 전례 없는 회심과 세례로 예수님께 자신을 드리는 영적 예배로 일어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헌신을 결단한 자들뿐 아니라 함께한 청년들이 삶의 자리로 돌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러지는 영적 예배가 이어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응원하소서. 이들을 통해 유럽 전역과 캠퍼스에서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 행하는 자들로 변화되어 그리스도를 참된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의 땅 되게 하소서.

▲ 이라크, 결혼 최저연령 18세→9세 법률 통과

이라크 의회가 혼인 최저연령을 현행 18세에서 9세 어린이까지도 결혼이 가능해지는 법률을 통과시켜 여성·아동 권리 운동가 들로부터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23일 가디언을 인용해 전했다. 현행 이라크 법은 '개인지위법'(1959년 제정)에 따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인 최저연령을 18세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난 21일 통과된 개정 법률안은 성직자들의 율법 해석에 따라 10대 초에 여자아이들을 결혼시킬 수 있다. 이라크에서 상당한 세력을 지닌 시아파 일부가 신봉하는 자파리 학파의 해석에 따르면 심지어 9세 어린이도 혼인이 가능하다. 수니파 율법으로는 혼인 최저연령이 15세다. 이 법안을 반대해오던 변호사 모하메드 주마는 "이란에서 여성·아동 권리의 종말이 왔다"고 말했다. 이라크 기자인 사자 하심은 "성직자들이 여성의 운명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게 된 것은 공포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레위기 18:30)

하나님, 어린이의 결혼을 막고 보호해야 할 의회가 오히려 종교적 명분을 내세워 법률을 바꾸는 모순된 일을 행하는 것과 정부와 이런 조혼을 조장하는 이슬람 성직자들을 꾸짖어 주소서. 육신의 정욕과 탐심으로 어린 소녀와 여성을 대하는 가증한 풍속과 법이 파하여지게 하시고 어린 소녀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진리로 인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며 복음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이라크의 몸 된 교회를 통해 주의 복음을 선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그 안에 믿음이 깊이 뿌리내리게 하소서.

▲ 중국 AI 챗봇 답시크, 실시간 검열 의혹…'답변 실시간 삭제'

저비용 고성능 모델로 세계 인공지능(AI) 업계에 충격을 준 중국의 AI 챗봇 서비스 '답시크'(DeepSeek)가 중국 관련 내용을 실시간으로 검열하고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가디언을 인용해 29일 전했다. 멕시코 독자 '살바도르'의 '중국에서 발언의 자유가 법적인 권리로 인정되느냐'는 질문에, 답시크가 답변을 준비하는 '사고 과정'으로 중국 정부의 홍콩 시위 진압, 인권변호사들에 대한 탄압, 신장 재교육 캠프, 반대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회신용체계 등의 내용이 표시됐다. 이어 답시크는 답변 본문에 민주적 틀에서는 자유로운 발언이 사회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돼야 한다며 "중국에서는 반대를 적극적으로 억압하는 국가 자체가 주된 위협"이라고 답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내용 모두를 황급히 삭제해버리더니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 이런 유형의 질문에 접근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대신 수학, 코딩, 논리 문제들에 관해 얘기하시죠!"라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이 외에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질문에는 답변을 회피하거나 편향적인 대답을 내놓고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내 눈이 이 땅의 충성된 자를 살피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라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시편 101:6-7)

하나님, 고성능 AI를 저비용으로 판매해 많은 사용자를 확보한 답시크를 통해 민감한 질문에 대해 답을 바꾸거나 회피해 편향적이고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는 중국을 다스려 주소서. 이것이 특정한 주제에 대한 차단을 넘어 사람들을 감시와 통제 안으로 넣으려는 악한 시도가 되지 않도록 관련자들을 엄히 꾸짖어 주십시오. 이 나라가 주의 완전한 길을 행할 수 있도록 진리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성도들을 통해 복음을 나타내사 주님과 함께 사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얻게 하옵소서.